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열여섯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열여섯째 주일입니다.

2. 후레즈노 교회 주중 사역안내

중보기도회와 심방전도팀이 같은날 모이겠습니다. 이 번주는 수요일 오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오후에는 심방전도팀이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3. 저녁예배안내

오늘 저녁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속장모임

오늘 예배후 속장모임이 있습니다.

5. 성경공부 안내

7월, 8월 방학이었던 성경공부가 지속됩니다. 토요일아침(7시) 수요일 저녁반(7:30)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2"권이 지속됩니다.

6. 8월-9월 행사안내

9월17일: 몽교회 개척예배 . Minority Ethnic conference

9월24일: 북가주선교디너, 산호세 베델교회

7. 담임목사 일정

이번주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9월04일	구경숙 집사	구자홍 집사	김현덕 안광민 구자홍
09월11일	김미하 집사	구경숙 집사	차석준 김형기 윤문섭
09월18일	김은정 집사	김미하 집사	윤문섭 홍윤기 임동재
09월25일	최승희 집사	김은정 집사	안광민 김현덕 김규현
8월안내	김은정 구경숙	8월초불점화	최성보 최주리아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중 가장 힘든 선거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선거라고 합니다. 클린턴이 최초 미국 여성대통령으로 쉽게 당선될 것이라는 선거예상은 트럼프의 선전으로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경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후보와 정당이 가진 가치가 다르다 보니 지지하는 분들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과열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선거라는 묘한 매력 때문이고, 미국이 보이고 있는 민낯을 보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치달으면서, 포스트 모던의 절정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와 원칙들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미국정부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전통적인 것들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보이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발버둥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혼란속에 우리들이 중심도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더 큰 변화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위치는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망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안 에 보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하면, 바울의 등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파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전세계에 전한사람입니다. 이 덕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치만, 종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대통령도 경제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경제적 풍요에 의지합니다. 아마 제법 오랫동안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속에 미국대선이 보여주고 있는 민낯은 결국 신념과 민주주의 열망이 아닌, 경제적 이득과 더 잘살아보겠다는 욕망이 예상치 못한 미국 대선 성향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풍요를 맛보던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말보다는 경제적 분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대선판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들의 과제는 이런 혼란스러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절망이라고 보이는 것이 회복되면 진정한 희망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는 부흥을 맞습니다. 저는 이 맛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자혜는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Fresno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절망이다.
회복은 어렵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가 회복되는 게 부흥이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변질된 이 상태에서부터 자각과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오늘 살 힘> 이찬수
© GODpeople.com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67장 (통31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규현 목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구자홍 집사	렘 20:1-6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진정한 믿음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435장(통492장)
❖ 찬양 Hymn	다함께	1장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i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김보흠집사와 변영근 성도를 위해
8. 이수경 집사 시아버지를 위해
9. 임동재 권사 백내장 재수술과 구경숙 집사 백내장 수술을 위해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최승희 최미란 임수호 이미예 윤문섭 임경희 박순옥 김형기 김현숙 김혜진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김규현 홍윤정 안광빈, 안미나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장영심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703.00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9월 행사 안내

1. 가을 성경공부 시작 (9월)
2. 9월10일 (토) Hmong church
3. 9월24일 (토) 선교디너-베델연합감리교회
4. 9월 24일 (토) 홈리스사역

약인은 그의 길을,
플리만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리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I think of you every day.
Love always, God



2016 Mission Dinner

\$20.00

일시 : 2016년 9월 24일(토) 오후5시

장소 :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1700 Lincoln Street

Santa Clara CA 95050CA 94521

(Church) (408) 244-8710 www.bethelkumc.net

주관 : Cal-Nev KUMC Caucus